

제주4·3 72주년 특집 <중> 정의로운 4·3해결 과정은

# 희생자 배·보상 특별법 통과 관건

###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20대 국회 폐기 수준 “이념적 잣대·당리당락 좌우돼선 안돼” 목소리

제주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작업은 그동안 법제화 과정과 국가추념의 단계를 거치면서 더디지만 진전을 보이고 있다. 2000년 4·3특별법 제정과 2003년 진상조사보고서 확정 및 대통령 사과, 2014년 국가추념일 지정 등 단계적으로 진행됐다. 이는 반세기 넘게 언급하는 것조차 금기시됐던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완전한 4·3해결 과정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4·3의 정의로운 해결의 핵심 현안은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희생자 배·보상 등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관건이다.

4·3희생자 및 유족신고는 4·3특별법 제정 이후 2018년까지 총 6회에 걸쳐 이뤄졌다. 올해 3월 현재 8만 7287명(희생자 1만4442명, 유족 7만 2845명)이 희생자 및 유족으로 인정

됐다.

4·3 당시 불법적인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수형인도 마찬가지다. 법원은 지난 해 1월 수형인 18명에 대한 재심사건 선고공판에서 공소기각 판결과 함께 형사보상금 53억4000만원에 대한 지급결정도 내렸다. 생존수형인과 유족 등 39명은 지난해 11월 국가를 상대로 제주지법에 10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앞으로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추가 진상규명과 지속적인 유해발굴, 유적지 정비 등도 특별법 개정을 통해 법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유족과 도민사회 염원을 담아 70주년 4·3을 앞둔 2017년 12월 4·3특별법전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70주년 4·3추념식에 참석해 “국가권력이 가

한 폭력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 희생된 분들의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해발굴사업과 희생자 배·보상 등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야 정치권도 특별법 국회 통과를 약속했지만 결국 공수포가 됐다.

특별법 개정안이 표류하면서 희생자 배·보상 문제 등은 제자리걸음이다. 이제 20대 국회도 얼마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특별법 개정안은 자동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큰 책임은 당리당락에 따라 접근하는 정치권에 있다.

4·15총선과 맞물려 여야 정치권은 또다시 4·3의 완전한 해결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보수와 진보 가릴 것 없이 선거철만 되면 꽃놀이패처럼 4·3해결을 내세우는데 대해 유족과 도민사회의 실망감은 크다. 4·3의 완전한 해결은 이념적 잣대나 당리당락에 따라 좌우돼서는 안된다. 추념 단계를 넘어 4·3의 정의로운 해결에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를 보여야 한다. 이윤형기자



1일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에서 온라인개학을 대비해 교사가 교내 방송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모의 화상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 원격수업 시범학교 제주중앙여고 예행연습 현장을 가보니...

# 교사들 수업 질 높이기 ‘고심 또 고심’

### 교사들 2~3명 팀 이뤄 유튜브 강의·댓글 답변 “학생 호응 생각보다 커 준비시간 길고 소통 한계”

1일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의 한 교실, 두 교사가 마주한 것은 학생이 아닌 마이크와 모니터였다. 코로나 19 여파에 개학이 연기되며 교실은 텅 빈 채 남았지만 교사들은 학생을 만나기 위해 교실에 앉았다. 실시간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다.

미리 짜인 시간표대로 오전 10시가 되자 고등민 교사가 ‘고교 역사 과목의 이해’를 주제로 강의를 시작했다. 학교 밖에서 유튜브로 이를 지켜보던 학생들이 실시간 댓글로 질문을 하자, 고 교사 앞에 있던 조한별 교사가 답글을 달았다. 고 교사는 “같은 역사 과목을 맡고 있기 때문에 한 명이 강의를 하면, 또 다른 한 명이 댓글로 답하며 강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다”고 했다.

같은 시간 중앙여고 스튜디오에선 수학 강사가 열렸다. 카메라를 앞에 둔 김대현(서귀포고) 교사가 학생들에게 설명하듯 전자칠판에 글자를 적으며 수업을 이어갔다. 같은 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현철훈·이재동 교사도 함께했다. 이들 역시 학생들 댓글로 반응을 지켜보며 질문에 답했다.

제주도교육청이 원격 수업 시범학교로 정한 중앙여고에선 지난달 31일부터 온라인 실시간 강의를 시범 운영 중이다. 온라인 개학에 대비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의 ‘예행연습’인 셈이다. 교육부가 9일부터 단계적 ‘온라인 개학’에 들어가겠다고 발표하면서 대부분의 학교가 당혹스런 분위기이지만 중앙여고에선 다소 여유가 느껴졌다. 방송을 위한 장비가 갖춰지고 학부모 강의 등을 실시간으로 진행해 온 경험이 쌓인 덕이다. 자체 개발을 통해 실시간 수업에서 출석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도 갖췄다.

조동수 중앙여고 교장은 “서귀포 고 교사 3명을 포함해 12명이 실시

간 강의를 시범 운영하며 온라인 개학을 준비하고 있다”며 “누구도 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낄 순 있지만 교사들의 역량을 키워준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훈란 속에서도 학교 현장은 차근차근 온라인 개학을 준비하고 있지만 아쉬움이나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김대현 교사는 “한때 300명이 동시에 접속해 시청할 정도로 반응이 좋았다”면서도 “교실 수업보다 3~4배 더 준비해야 하고 학생들과 상호작용이 어려운 점은 있다”고 했다.

출석 확인, 학습 여부 등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도 풀어야 할 문제다. 실시간 강의 참관을 위해 중앙여고를 찾은 변유근 대기고 교사는 “온라인 개학도 수업일수에 포함되는데 출석을 어떻게 인정할지에 대한 지침이 없다”며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다시 보기가 불가능할 경우 이를 제때 듣지 못해 진도를 못 나가는 학생이 있을 수 있어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 광화문광장에 제주4·3 조형물 설치

### 4·3희생자 명단 적고 마을별 희생지도 표시

제주4·3 72주년을 맞아 서울 광화문 광장에 4·3 희생자 1만4401명의 이름이 적힌 4·3 추념 조형물이 설치될 예정이다.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는 1일 제주4·3 72주년을 추념하는 ‘4370+2 봄이 완수광?’을 기획, 광화문 광장에 4·3추념 조형물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광화문 광장의 추념 조형물은 1일부터 5일까지 광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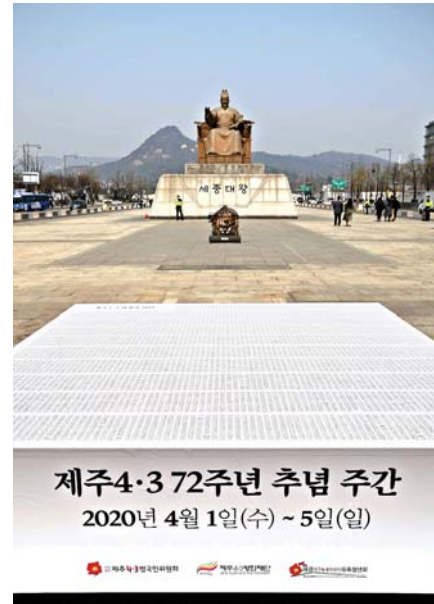
추념 조형물에는 1만4401명의 희생자 위패를 넣어 추념하고 4·3의

개념과 제주섬 마을별 희생자 지도도 표시됐다.

범국민위원회는 “코로나19 국가재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시민들이 모이는 추념행사와 추념종교의례는 진행하지 않는 대신 추념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추념 조형물을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념 광장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온라인 추모관(www.43people.org)을 통해 추모의 글과 사진 등을 올릴 수 있도록 준비했다.

서울=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제주4·3범국민위원회가 4·3 72주년 추념 주간을 맞아 1일 광화문광장에 희생자들의 이름이 적힌 추념 조형물을 설치했다. 연합뉴스

## “4·3 평화 교육 지원 필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가 4·3 평화·인권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을 제주도교육청과 제주도의회 교육위에 요구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4·3항쟁 72주년을 앞둔 1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해 12월 제주4·3이 2020년 적용 중 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집필기준의 필수 학습 요소로 반영됐고, 이에 맞춰 고교 역사 교과서도 4·3 학

생에 대한 부분이 대폭 강화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변화는 제주4·3 교육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활성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은기자

## 도내 초중고 6127명 스마트기기 없이

### 도교육청 전수조사 결과

오는 4월 9일부터 단계적 ‘온라인 개학’이 시작되지만 제주도내 초중고생 6000여명이 컴퓨터나 노트북, 태블릿 등 스마트기기를 가지고 있

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생은 전체 7만8629명으로, 이 중 6127명(7.8%)이 스마트기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기기는 있지만 가정에 인터넷이 설치되

지 않은 학생도 전체의 2.3%(1838명)이었다. 이는 도교육청이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도내 전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학교급별로 보면 중고생에선 스마트기기 미확보율이 1~3% 내외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에 비해 초등학생은 그 비율이 13%(4만479명 중 5275명)를 웃돌았다. 김지은기자



**Jeju 서귀포의료원**  
SEOGWIPO MEDICAL CENTER

**보건복지부 인증 의료기관**

**정형외과 전문 진료**  
무릎인공관절 및 무릎퇴행성관절염 전문진료 수지접합수술

**24시간 분만산부인과 운영**  
24시간 분만실, 신생아실 운영  
부설 및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운영**  
보호자 없이 간호인력이 간병

**심뇌혈관센터 운영**  
24시간 응급심혈관 시술 가능

**대표전화 : 730-3000**